「비파형동검의 한반도 유입과정에 대하여」의 대한 토론문

소흑석구 8501호묘를 비롯하여 중국 청동기나 비파형동검에 대해 무지하지만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소흑석구 8501호묘와 비파형동검의 고고학적·역사적 맥락에 따른 편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증 자료가 타당해 보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도 마제석검(고식석검)의 편년과 절대연대상의 불일치, 형태적 차이 등으로 인해 동검모방설을 부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발표자와 이견이 없다. 다만 유병식석검의 조형문제와 비래동 동검의 편년, 동검의 석검화현상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

1. 발표자는 한반도 석검의 기원을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면서 쌍타자III기 문화, 고대산, 두만강 유역의 흥성유형 및 유정동유형 등 만주의 여러 지역과 팽이형토기문화에서 보이는 유경식석검을 조형으로 들고 있다. 비파형동검의 한국화 과정에서 홈의 존재로 볼 때 검병 착장방식에서 유경식석검을 모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유경식석검으로는 유병식석검의 등장을 적절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병식석검의 기원을 짐작할 수 있는 몇몇 자료를 언급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참조)

조기~전기전반으로 편년되는 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영월 주천리유적, 경주 금장리유적, 홍천 외삼포리유적과 개인적으로 이들과 동일 단계로 판단하고 있는 인천 동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석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영월 주천리유적 17호 주거지(조사 당시 18호) 출토품은 완성품인지 미완성품인지 알 수 없지만 유병식석검의 제작의도를 보인다는 점, 금장리 하층 수혈주거지 8호에서 마모가 심하지만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었다. 인천 동양동 1지구 1호 주거지 출토품은 혈구가 있는 유병식석검으로 다소 조잡하고, 외삼포리 5호 주거지에서도 혈구가 있는 고식석검으로 판단되는 이단병식석검의 편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주거지의 구조와 공반유물 등으로 볼 때 국내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석검으로 판단되므로 석검의 조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비래동 동검을 석검의 형태로 변용되는 비파형동검이라고 보고 있는데 석검의 형태로 변용(석검화)된다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상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한 비래동 동검의 연대 문제에 있어서 공반유물을 참고한다면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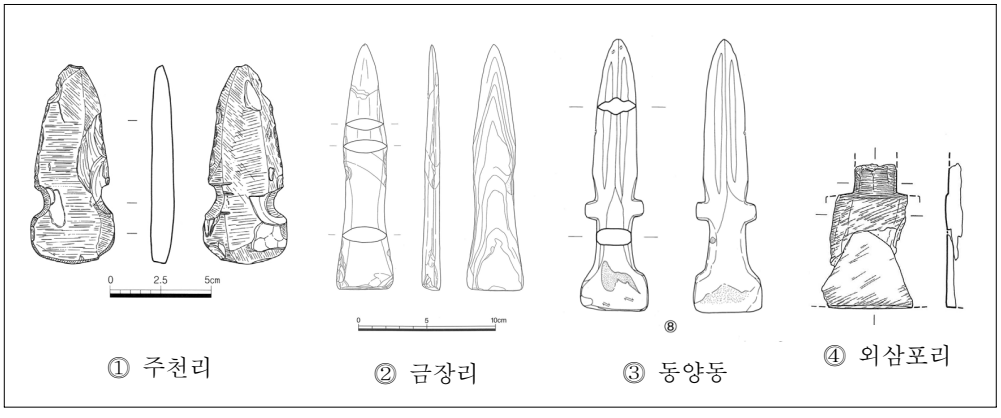

그림. 유병식석검 조형 및 고식 석검 사례(축척부동)

연구 결과로는 전기 후반 또는 말 정도로 편년될 수 있다. 발표자의 편년을 적용하면 다른 연구자에 비해 다소 늦게 편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검의 조형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요서기원설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표자의 연대를 적용하면 요서기원설은 연대적으로 더욱 부합되지 않는다. 연대문제와 조형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석검과 동검의 공존과 동화의 이유에 대해 지역거점에 근거한 정착농경에 기반한 한반도 청동기문화(사회성격 및 의례와 매장풍습)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리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